

光日春秋

정 목 일



근래 아들 내외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작은 액자에 넣은 것인데, 아들 내외가 손녀를 안고 찍은 사진도 들어 있었다. '수항이가 태어난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항상 저희를 먼저 생각하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락) 수항이가 밝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봐 주세요. 우리 가족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두 분께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감사장은 처음이어서 얼떨떨하기도 하였다. 짧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아는데, 나는 부모님께 한번도 '아버님,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기만 하다.

며느리가 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우리 내외는 큰 고민에 빠졌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가 출산하면 누가 양육할 것인가. 아내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퇴

직하고 손녀를 양육하는 일을 맡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손녀의 양육은 외가에서 맡기로 결정이 났다. 아들 내외에게 아이 셋을 낳아달라고 부탁하던 나는 머쓱한 꼴이 되고 말았다. 대책도 없

이 필요성만 강요한 셈이다. 짧은 사람에게 출산을 권유하며 "이것이 애국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환경으로선 아이를 많이 가질 수 없다"고 간단히 대답한다. 국민연금을 낸 것만큼 받지 못하는 원인은 저(低)출산 다(多)고령자 현상이 있다. 저 출산 문제는 국가경제와 민족번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는 차츰 노인국이 돼가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전

세계 156개국을 분석한 '2008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여성 1명이 가입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평균 출산율)가 1.20명으로 홍콩(0.96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낮다.

한국에 사는 20대 후반과 30대 여성들은 육아 해결을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라고 꼽는다. 저 출산과 고령사회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가발전과 민족장래는 어둠의 터널로 빠져들고 말 것이 분명하다.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장려책

국가재정 문제의 우선 순위가 있었지만, 저 출산문제를 가정에만 맡겨두는 태도는 현실과 미래를 파악하지 못한 인식이다. 한 아이의 출산으로 부모, 친가, 외가의 어른 6명이 고민에 빠지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출산기피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민족의 앞날은 동력을 상실하고 만다.

손녀 첫돌을 맞아 아들 내외로부터 받은 감사장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외가에서 양육하기 때문에 간혹 만나는 날이면, 얼굴이 낯설어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는 처지가 안타깝다. 그러나 이런 다행한 경우에 속한다. 손자가 외국에 있어서 일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처지가 된 노인들도 많고, 결혼시킨 자녀가 오래 동안 손자를 낳지 않아 안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손자와 간신히 안부를 주고받지만, 노인들은 협연의 정을 아쉬워한다.

현대의 핵가족제도는 조손간(祖孫間)의 단절을 가져왔고 노인들에게 애정 결핍을 안겨주고 있다. 조손간의 따뜻한 혈연관계의 복원은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수필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 내외로부터 받은 감사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재인

대낮부터 주막에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한 젊은이가 목에는 깃스를 하고 숄더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연거푸 한숨을 내쉬는 흉에 옆자리에서 점심 요기를 하고 있던 목수는 꽤 거슬리기도 하고 또한 내심 호기심이 발동한다. 목수는 슬그머니 옆자리로 가서 술을 권하며 넌지시 물어보았다.

"젊은이가 무슨 근심이 그리도 많누?" 불쾌한 얼굴을 한 젊은이의 신세처럼 어찌 대답할지 몰랐다.

"저는 청나라와 왜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얼마 전에 일 때문에 귀국했거든요." "오호라! 그렇다면 부귀영화는 때놓은 당상일터. 한데 무슨 한숨이 그리도 깊어? 젊은이."

"그게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는 일류란 말씀입니다. 스카우트를 받은 몸이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일은 쉬엄쉬엄 해야지, 야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 보군 그대. 도대체 무슨 문제가 그리도 절망한단 말인가?" "모두가 바로 지붕과 온돌 때문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동양 3국의 전통건축은 목구조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그러나 한국 전통건축은 중국과 일본과 달리 못을 사용하지 않고, 맞춤이나 이음 방식으로 건축하며, 이러한 목구조가 주춧돌 위에 얹힌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외력은 지붕의 하중으로 결된다. 또한 우리의 지붕 속은 중국과 일본의 지붕 처럼 가볍지 않다. 지붕 속에는 적심이나 나무토막들과 보토라는 흙으로 채워져 있다. 이는 물론 지붕의 하중을 더해 구조적 안정을 꾀할 뿐 아니라 지붕의 아름다운 선을 연출하는 기법이기도 하다.

중국 전통건축은 넓은 땅과 다양한 기후에 따라 양식이 몇 가지로 나뉜다. 북부지역은 차고 건조한 대륙성 기후, 남부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해안성 기후이기 때문에 북쪽보다 남쪽지역에서 많은 수목을 조달할 수 있었다. 북부지역에서는 부족한 목재 대신 벽돌이나 흙을 벽체에 쌓는 구조가 발달하였다. 반면 남부지역에서는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해 높은 벽체를 만들고, 비가 많이 와서 나무

어느 자객의 고민

"자네 직업도 목수(건축가)인가 보군 그려. 그렇지 한국의 지붕 곡선은 청나라와 왜의 지붕 선과는 사뭇 다르지. 암, 다르다고 할까. 게다가 온돌문화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이니 생소했구먼. 그거야 자연스레 익숙해질 텐데 무엇에 그리 낙심하는가."

젊은이는 목수의 말은 듣는 듯 마는 듯 신세 한탄을 한다.

"얼마 전 저녁에 전 거사를 치르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지요. 지붕에 귀를 대고 방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려 해도 말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난쟁이가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나의 숄더만 믿고 지붕을 뚫고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아뵘새! 청나라와 왜나라에서는 통했는데 우리나라 지붕 속에는 흙과 나무토막이 잔뜩 들어가 있어 발목만 부러졌지요. 절치부심! 어제 저녁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이번엔 방바닥을 뚫고 들어갈 작정이었지만... 오호 통재라. 오호 애재라. 온돌바닥에 그만 머리를 부딪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답니다."

"아, 흑시. 그... 마을에 불이었던 자객을 찾는다는 방이..."

어느 유학파 자객의 한탄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아마도 한국 전통건축을 좀 더 이해하고 적을 을 해야 할 것 같다.

위에 집을 짓는 형식이 발달하였다. 일본의 건물은 바다에 앉는 생활방식이 건축양식에 반영되었다. 일본의 전통적인 가옥은 낮고 넓게 짓는 것이 특징이고 지진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유연성이 있는 목재나 흙, 종이를 주로 사용하였다. 일본가옥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지붕스타일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우리의 목구조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에 한하지만, 아래로부터 위로 작용하는 힘에는 속수무책이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지붕을 주춧돌 위에 얹는 방식을 써서 지붕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납대문 방화사건 때 화재진압의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구조적 문제이기도 했다. 즉, 소방수의 수압과 같은 강력한 힘이 아래에서 지붕을 향해 발사되면 고정되지 않은 지붕으로 인해 건물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흔들린다.

온돌문화 또한 동양 3국 중 우리나라의 특색으로 방바닥 밑에 납작한 돌을 깔고 아궁이에서 불을 때 돌을 달구는 우리의 전통적인 난방형태다. 가끔 중국 무협영화 등에서 자객이 마루를 뚫고 나오는 장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불가능한 장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자객이나 귀신 등이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어린이건축교실 운영위원>

기 고



이진서

최근 몇 년간 이어온 경기하강이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암초를 만나 비틀거리다가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 이제 중소기업은 헤어날 수 없는 지경이 아닐까 걱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당초 28조원의 보증규모 계획을 29조5천억원으로 확대하여 환율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내년에는 보증 규모를 추가로 4조원 가량 늘려 잡을 계획이다.

신보는 과거 IMF 당시에도 기업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소방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경기 연속특에 크게 기여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성장 유망기

셋째,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제도는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이 있다. 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말까지 시행된다.

넷째, 중소기업체 제조업체의 이행보증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이행보증 상대처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였다.

다섯째,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은 KICO(키코) 등 환거래 피해기업과 일반 유동성 부족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의

중소 유동성 위기 극복 보증제도 활용을

업, 흑자 기업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보증 지원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시행된 신보의 각종 보증제도들이 시장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은행들의 대출심사 강화 탓도 있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보증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에 시행된 보증 제도를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 35세 이하 미혼남녀가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년창업 특별보증'을 추천한다. 기업당 5천만원 한도로 올 연말까지 지원하는데 현재 호남권에 230여명의 청년 창업을 지원했다.

둘째, 제조업과 관련 도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원자재구입 특별자금'을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는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 자금조달을 추천한다.

채권담보부증권이란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묶어서 풀(pool)을 만든 뒤 신보의 보증을 통해 신용도를 높인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기법이다. 이 방안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매입회사채 지원규모는 금년에도 1조원, 추가로 내년 중 2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들어 파산하거나 다른 기업에 합병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내 우량기업들도 불확실한 미래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유동성 확보면에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신보에서 시행중인 각종 정책성 보증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양본부장>

위험한 화학물질 운송을 오토바이 택배로 하다니

최근 시내에는 택배회사 오토바이가 많이 다닌다. 문제는 이들이 위험한 물건까지도 오토바이를 이용해 운반한다는 데에 있다.

며칠전 택배회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것을 봤다. 그러데 신고가는 상자 결면에 '에탄올'과 'HCl'이라고 써 있어 너무 놀랐다.

에탄올이 어떤 화학물질인가. 에틸 알코올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무색의 가연성 화합물이다. 보통 술의 원료 정도로만 알지만 이것을 태울 경우 푸른색을 띤 화염을 발생시키며, 물과 이산화 탄소가 만들어지고 증기는 폭발성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HCl은 염산의 화학적 영어명이다. 염산이 어떤 물질인가. 수분과 닿으면

격렬하게 반응하는 화학물질로서 잔악한 데라에 사용되기도 하는 무서운 화학약품이다. 이것은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순식간에 피부를 태워버릴 만큼 아주 강력하고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 위험한 물질을 오토바이로 수송하면 물건이 외부에 노출돼 사소한 일로도 사고가 나기 쉽고, 특히 오토바이는 교통신호를 자주 무시하고 심지어 인도도 달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택배에는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말고 안전하게 만든 특수차량을 이용하기를 바란다.

▲김덕용·광주시 북구 오통동

시 설

호남권 선도사업 예산 영남보다 많다고?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호남권에 가장 많은 37조원을 배정했다고 한다.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다. 사실이라면 당연히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속 사정이 전혀 다르기에 씁쓸하고 황당할 뿐이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개 권역 30대 프로젝트에 모두 118조 400억원을 투입하는데, 호남권 5개 프로젝트에는 37조 2천600억원을 반영했다고 한다.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영남의 2개 권역 10개 프로젝트에는 22조5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마디로 호남권 예산이 영남보다 15조원 이상 더 책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호남권 5개 선도사업 가운데 새만금 개발, 여수엑스포 지원,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은 앞 정권부터 예산을 투입해온 계속사업이다. 새로 예산이 들어가는 선도사업은 사남해안 연륙

교와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2개에 불과하다. 새만금 신항과 군산공항 확장을 포함해도 신규 예산은 12조8천 900억원에 그친다.

반면 영남권 선도사업은 과거에 투입한 예산이 1천351억원 수준이다. 22조원 대부분 신규 사업인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도 지난 9월까지 모든 사정을 숨기지 않았다. 영남권은 모두 신규로 추진하거나 과거정부에서 확정되지 않는 사업을 새로 착공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남권 선도사업 예산이 영남권보다 많다고 강조하는 것은 광역경제권 재조정 요구에 대한 거부나 다름없다. 호남권의 예산이 영남권의 절반에 그치는 현실에서 숫자놀음으로 호남권의 반발을 수습할 수는 없다. 해결 방법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된 광역경제권 구상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거짓 주장을 내세운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지역사회 나서야

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 포함된 옛 전남도청 별관 건물 철거 문제를 놓고 그제 열린 '시민대토론회'가 성과없이 끝났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토론회에서 통과구를 찾길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토론회는 아시아문화전당측이 추진한 5·18단체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찬성론자들은 본관 건물 보존 등 5·18의 상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만큼 별관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대론자들은 옛 도청 별관이 5·18 사적지 중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같은 결과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5·18단체와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보존'과 '철거'를 고집하며 지루한 공방을 벌여왔다. 여론에 밀려 토론회를 갖기는 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양측의 공방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건물의 해체작업이 이미 중단됐고 부지 터파기 공사로 지연되고 있다. 확보한 국가예산을 반납할 상황에 처해 있어 내년도 원만한 예산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2012년 완공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이 장기 표류되면 피해는 광주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은 광주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국책사업이다.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며 주장을 끌고 가는 때가 아니다. 정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비롯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광주의 문제인 만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언제까지 사태를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보존'이든 '철거'든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클레오파트라가 제일 좋아했던 과일이자 로마 글래디에이터(검투사)의 스테미너 식으로 그리스의 호머, 플라톤이 예찬했던 식품은? 정답은 무화과다.

무화과는 옛부터 노화를 막고 성인병의 주범인 유해산소를 없애는 웰빙식품의 으뜸으로 꼽혀 왔다. 또 항균작용이 탁월하고 독특한 향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아도 벌레나 해충이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아시아를 비롯한 중동지방이 원산지인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과일로도 유명하다. 마가복음에는 무화과를 빗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고하는 구절이 실려 있다. 지난 2006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이스라엘 연구진은 무화과가 1만1천400여년 전부터 재배된 인류 최초의 과일이라는 논문을 실기도 했다.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의미다. 그러나 열매 없이 과일이 열릴 수 없는 노릇. 부름과 여름까지 일

을 올릴 수 있는 재배 방법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시설재배 농산물 가운데 최고의 수익 작목인 오이가 10a당 1천500만원선인 만큼 새로운 고소득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재배방법 개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돈 되는 작물로 알려지면 너나 없이 재배에 뛰어들어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유통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획기적인 영농법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무화과



| | | | |
|-------------------------|-----------------------------------|---------------------------------|--------------------------------------|
| 光 卍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許宰浩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 |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11 | |
| 대표전화 2200-551 | |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 www.kwangju.co.kr | | www.kwangju.co.kr | |
|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시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
| 편 집 부 2200-629 | 문화홍보부 2200-626 | 광고마케팅국 2200-521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
| 정 처 부 2200-616 | 여론대응부 2200-628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 회 1 부 2200-617 | 체 육 팀 2200-627 | 디 자 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
| 사 회 1 부 2200-618 | 사 진 부 2200-690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 |
| (F A X 222-4267) | 조 사 부 2200-570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